

1995年度 始務式 舉行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月 6日 振興會 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5년도 始務式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李喜鍾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흥회가 만 5년을 계기로 자립기반을 구축,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됨으로써 업계는 물론 관련기관등으로 부터 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 업계의 수준향상 도모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우리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업계 스스로 그동안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세계와 어깨를 견주고 해외지향적인 활동과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업체간의 일체감 조성과 전기공업 수준향상에도 힘써 우리업계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 증전기기 수입업체 총람」발간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우리 전기공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33개 주요 수출 유망국의 국별·품목별 바이어 리스트를 종합수록한 「해외 증전기기 수입업체 총람」을 발간 하였다.

본서는 4개지역 33개국으로 분류하여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차단기, 전선, 건·축전지, 기타 전기기기에 대한 바이어

및 전기관련 입찰기관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기공업관련 국제 전시회 및 주요국의 전기공업 수출·입 통계등을 수록하였다.

올해 WTO(세계무역기구)의 본격 출범으로 우리 전기공업계도 내수시장 경쟁차원을 넘어 국제 경쟁시대로 돌입할 시점으로써 본서가 매년 늘어나는 전기공업 무역적자 해소 및 수출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1월 18일 무역회관에서 재적 이사 20명중 13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제1차 이사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먼저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안

건으로 “'94년도 수지결산(안)”
과 “'95사업계획 및 수지에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95 定期總會 및 품질경영 실천 결의대회 성료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2
月21日 한국종합전시장
(KOEX) 4층 회의실에서 회원업
체 대표 120여명과 통상산업부
鄭海澆 차관보등 관계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19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
했다.

진흥회에서는 올해 사업목표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정
보수집·전파기능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수출산업화 촉진, 중전업
계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및 자립
기반의 안정적 구축에 두고 전기
공업 및 업계발전을 위한 내실있
는 사업과 세계화·개방화에 대비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
는 시점에서 다행히 전기업계는
한전으로부터 기술개발기금으로
약 500억원을 이관 받아 민간기
금화하여 진흥회에서 운용토록 되
어 있어 진흥회에서는 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방안을 마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전기업계의 수
요창출과 국제간의 기술교류를 목
적으로 개최된 『제1회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이 성공리에 끝
남에 따라 올해는 내년 5월 20日
로 예정돼 있는 제2회 전시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전으로 자리잡고

전기업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
는 고두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
반 준비활동을 철저히 해나갈 계
획이다.

또한, 국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미
국전기공업협회(NEMA)등 주요
국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조 약정
체결과 교류를 정례화 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
등을 강화하는데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전기산업을 2천년대 세계 8
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산업화
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중전기기 산업의
발전전략』프로젝트는 예정대로
금년 5월말 완료됨에 따라 중전업
계의 현재와 미래를 갈음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마련될 전망
이다.

이밖에도 중전업계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중전기기 시험장 건설,
각종 제도 개선활동도 꾸준히 추
진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도움
을 줄 계획이며 모·수급기업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력관계 구축
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중전기기
기술선진화 업체 견학과 대단위
수요처 방문활동도 올해 주요사업
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96 전기공업 동향 및 전망” 조
사·자료를 발간하는 것을 비롯,
“동남아 주요국의 전기공업 동
향”자료발간 등 홍보·출판 업무

이날 개최된 품질경영(QM)실
천 결의대회에서는 전 전기업계
임·직원이 세계시장 개방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질경
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이 시급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품
질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전 전기업계가 품질
경영 운동에 솔선 실천할 것을 다
짐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통상산업부
鄭海澆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WTO체제 출범과 세계화가 본격
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일류가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맡은 분야에서 세계 일류화
를 향한 능동적인 참여와 창의적
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
하고 정부에서는 중전기산업의 경
쟁력 제고 및 차세대 전력기반 구
축을 위한 「21세기를 향한 중전
기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특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5백억
원 규모의 기금확보와 중전기기
시험설비 설치, 기능공양성센터
설립 등 중전기기 산업의 인프라
를 구축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
혔다.

또한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를 위해 단체 수의계약품목, 수입
선 다변화 품목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하면서
2천년대 중전기 산업이 세계 8위
권으로 도약하여 세계 중심에 우
뚝서는 풍요롭고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 전기인들이 노력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진의 발걸
음을 재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상산업부 차관 초청 간담회 개최

韓 電機工業振興會는 2月 27日 팔레스호텔에서 중전기 업계 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朴雲緒 통상산업부 차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정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 부터 중전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 기술개발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해 주고 특히 기술개발 완료후 상환되는 기술료 500억원 규모를 민간기금 형태로 기금화하여 취약한 중전산업 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 배려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중전산업 발전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연간 소요량 27만톤의 약 3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전기 강판의 경우 지난 1月 일본 고베지역의 지진피해로 수급불균형이 생겨 전기강판의 가격인상이 우려되고 더우기 국내 사용량 부족분에 대한 공급방안이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전기 강판의 가격안정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과 국제 전기동가치의 인상으로 국내 전선류 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전선가치의 안정이 시급한 바, 국내 전선가치의 안정을 위해 동광석, 조동(粗銅)등 원료와 전선제품의 수입관세율(현재 5%)을 무세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에 개발 시험 설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인력난 해소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이 업체와의 발전소, 변전소용 기자재 구매시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계약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품 납품후 시운전후에도 성능보장 유보금조로 현금으로 지급을 유보(2-5년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업체의 자금경색 유발과 금융비용 부담 등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만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장 유보금」제도를 폐지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토록 하여 중전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朴차관은 답변을 통해 변압기용 규소강판의 안정공급을 위

해 포철의 생산설비 증설여부를 조기에 검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한전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중전기 업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전기 시험설비 건설은 그동안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방침을 확정했으며 「성능보장 유보금」제도도 폐지 또는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전선 원자재의 가격안정과 인력난 해소 문제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 내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朴 차관은 수입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수의계약품목,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사전 예시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임을 밝히고 업계에서도 이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줄 것과 내수 위주에서 탈피,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歐洲 重電産業 시찰단 파견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우리 전기업계의 세계화 실현 및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오는 4月 4日 부터 13日까지(10일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구주 3개국에 대한 시찰단을 파견한다.

주요 중전기 업체 대표 30여 명과 통상산업부, 한전 관계관등

이 참석하는 이번 시찰단은 세계적 중전기 기업인 독일의 SIEMENS Group과 스위스 ABB Group, 프랑스 MERLIN GERIN 사 등을 방문, 현지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게 되며 특히 이 기간중 열리는 '95하노버 산업 박람회를 참관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95 第1次 機械類・部品・素材 국산화 대상품목 선정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3月3日 “전기기기 국산개발 협의회”를 열고 '95년도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개발 대

상과제를 선정, 통상산업부에 고시 요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영화산업 전기제작소의 “가스형 계기용 변

압기”등 총 10개의 시제품 개발 대상 과제와 양산대상 품목으로 대진정밀(주)의 “배선 단자판” 등 2개 과제로 이들 과제가 고시 되면 각종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부터 국산화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자금 및 양산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95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 선정 현황〉

(시제품 개발대상 품목)

과 제 명	업 체 명	개발기간(개월)
중저압 차단기용 Ag-Sn 판접점소재	세 기 전 자 공 업	24
냉동탑차용 고성능 Blower Motor	동진모타공업(주)	24
가스형 계기용 변압기	영화산업전기제작소	24
FIELD-BUS를 지원하는 계측제어용 Local Controller	M.A.F	24
고주파가열기용 적외선 온도측정 제어장치	아 성 산 업 (주)	24
항만하역용 크레인의 컨테이너 흔들림 방지시스템	서 호 전 기 (주)	23
단상전동기용 MOSFET 소형 인버터	삼 화 기 연 (주)	24
자기진단형 고차단용량 기중차단기	영신전기공업(주)	12
인버터형 리드와이어 용접시스템	민 택 리 서 치	15
파이프 접합용 TIG 원주용접장치	삼 흥 공 업 (주)	24

(양산 대상품목)

과 제 명	업 체 명	개발기간(개월)
배선단자판	대 진 정 밀	'91.2~'92.2
폐쇄분기형 배선단트	대 진 정 밀	'91.2~'92.2